

아우구스티누스와 고전적 덕론(德論)의 변형

강상진*

【요약】

서양 덕론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들어 준 작가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들 수 있다. 덕을 통해, 즉 인간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에 따라 행복에 이른다는 고전적인 생각의 자리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사랑과 하느님 사랑이라는 양극성에 근거한 모델을 제시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적 지복과 동일시하는 참된 행복은 덕을 통한 인간의 성공적 삶에서 성립할 수 없다. 고전적 덕은 비이성적 감정들을 지배하는데 성공할 수 있지만, 비이성적 감정 자체가 이미 사랑의 방향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적 덕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습관화는 예기치 않았던 사랑의 관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덕이 올바른 사랑의 질서에 놓이지 않는 한, 감정에 대한 지배력이나 인간 행복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덕론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무게 중심의 이동이 있다. 수단과 목적의 구조는 불변이지만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던 덕이 이제 사랑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덕론은 고전적 덕론의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 덕, 습관화, 감정, 행복, 지복

* 서울대학교 철학과

** 이 글은 2010년 5월 27일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의 봄 학술대회 <덕: 삶의 맥락으로 부타>에 발표되었다. 당시 논평을 맡아주신 이창우 선생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 소중한 심사의견을 통해 논문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I. 들어가는 말

서양지성사에서 덕(virtue, virtus) 개념 이해의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한 사람의 하나로 아우구스티누스(354-430)를 들 수 있다. 서양에서 덕(德) 개념의 원천은 물론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arete)이지만, 이 개념의 라틴어 번역인 ‘비르투스’(virtus)에 고유하게 그리스도교적인 이해의 지평을 확보해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안에서 고전적인 덕(아레테)이 기능의 맥락을 벗어나 이해되고, 그리스도교적인 선악을 준거로 이해되는 덕(비르투스)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 덕이 인간다움을 표상하는 중심개념이라면, 고전적 덕론에서의 덕스러운 인간(virtuous person), 유덕하고 훌륭한 인간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리스도교적 덕론에서의 덕스러운 인간은 선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되 올바른 질서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고전 윤리학²⁾의 행복주의적(eudaimonistic) 틀로부

-
- 1) 기능의 탁월한 발휘 혹은 최선의 발휘가 우열의 연속선을 전제한다면, 선악의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연속적 우열보다 일종의 양극성(polarity)이 성립할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의지는 선의 위계적 질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 사랑과 하느님 사랑,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성립하는 양극성에 초점을 맞춘다. C. Harrison, *Augustine: Christian Truth and Fractured Humanity*(Oxford University Press, 2000), 99-100.
 - 2) 필자는 이 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고전 윤리학의 일차적 준거로 삼을 것이다.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특히 고대 후기에서 고전 윤리학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위주로 ’고전 윤리학‘을 이해할 경우’라는 단서 하에서 덕론의 역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전적 덕론에 어떤 변형을 주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글로 읽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작품은 *De beata vita*와 *Contra Academicos*이지만, 논문에서는 『신국론』을 주 텍스트로 사용했음도 밝혀둔다. 초기 작품으로부터 후기작품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덕론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작업으로 보인다. 지금 언급된 초기 작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논문으로 Gösta Hök, “Augustinus und die antike Tugendlehre,” *Kerygma und Dogma* 6(1960), 104-130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이 고전적 덕론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Christoph Horn, “Augustinus über Tugend, Moralität und das höchste Gut” in *Zur Rezeption der hellenistischen Philosophie in der*

터 출발하고 근본적으로 그 틀에 머물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이지만, 어떤 관찰과 논변을 통해 이것의 근본 전제들을 반성하면서 그리스도교적 덕목을 도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가 어떤 관점에서 고전적 덕론의 약점을 진단하는지, 또 어떤 통찰을 통해 고전적 덕론의 ‘포기’가 아닌 ‘변형’을 이끌어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제 그가 고전적 윤리학의 핵심 개념인 행복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서 그리스도교적 이해를 만들어내는지, 이렇게 그리스도적 지평에서 이해된 행복이 어떻게 고전적 덕론의 변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변형이 덕론에 대해 갖는 함축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윤리학의 핵심에는 물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앙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학적 통찰들이 있다. 이것을 이유로 그의 윤리학을 철학적 윤리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윤리로 보는 것도 정당하다. 아마도 문제는 철학적 윤리학과 종교윤리라는 구분으로부터 후자가 과연 진지한 철학적 검토의 대상인지 묻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할 것이다. 필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전적 행복주의 틀에서 출발, 철학적 논변을 통해 도달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과연 건전한 논변을 통해 획득한 것인지 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그의 논변을 논증으로서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평가작업이 철학적으로 의미있다는 입장이다. 그가 언제부터 신학적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지, 우리가 그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철학적’인 검토가 어렵다면 적어도 ‘인문적’인 검토는 가능하고 그러한 성찰을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덕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신화를 연구하고, 신화가 이후 유럽문화에 끼쳤던 광범위한 영향으로부터 신화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 덕론의 신학적 차원에 깊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사상 때문에 가능했던 서양지성사의 덕 이해의 한 지평을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pätantike, eds. Fuhrer, Th./Erlar, M.(Stuttgart, 1999), 173-190을 참고하라. 『신국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논문으로 Penelope D. Johnson, “Virtus: Transition from Classical Latin to the *De Civitate Dei*,” *Augustinian Studies* 6(1975), 117-124을 들 수 있다.

II. 몸 말

고전적 행복 개념이 안고 있는 간단치 않은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의 통제 가능성 밖에 있지만 그것의 소유 여부가 행복에 사소하지 않은 의미를 가진 것들, 즉 소위 외적인 선(external good)의 문제³⁾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의 구체적 행로와 조건들을 형성하는 우연의 문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그런 문제들의 거의 끝점으로서 죽음의 문제까지를 포함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우연과 운명에 종속된 것으로 죽음이라는 한계에서 멈추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운명의 한계와 고전적 행복 개념 사이에서 일종의 양립불가능성을 발견한다. 한계 앞에서 좌절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따라서 진정한 행복 개념에 충실하려면 한계와 그것의 극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논변을 통해 고전적 행복을 그리스도적 지복으로 확장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고전 윤리학의 응수는 인간인 한에서의 행복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하는 시인의 말처럼⁵⁾

-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복은 명백히 추가적으로 외적인 좋음 또한 필요로 한다.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일들은, 마치 도구를 통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통해, 또 부와 정치적 힘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또 이를 테면 좋은 태생, 훌륭한 자식, 준수한 용모와 같이 그것의 결여가 지극한 복에 흠집을 내는 것들이 있다. 용모가 아주 추하거나 좋지 않은 태생이거나,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온전히 행복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더 어렵기는 아마도 아주 나쁜 친구와 나쁜 자식들만 있는 사람, 혹은 좋은 친구와 자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죽어서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종류의 순조로운 수급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다. 바로 이런 까닭에 다른 사람들은 탁월성을 행복과 동일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행복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8장.
- 4)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활동이 삶에서 결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복된 사람들 중 누구도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결코 가증스러운 일이나 비열한 행위들을 하지 않을 테니까. 또 우리는 진정으로 좋고 분별 있는 사람은 모든 운을 품위 있게 견뎌 낼 것이라고, 현존하는 것으로부터 언제나 가장 훌륭한 것들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않는 욕망의 조정에서 성립한다. 운명의 가변성에 맞서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인 덕뿐이며, 운명의 한계에 대한 통찰에서 성립하는 욕망의 조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충족된 상태로서의 완전한 행복에 이른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적인 덕이 그렇게 견고한 성(城)인지에 대해 의심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소위 고전적 덕의 침해불가능성(*invulnerability of virtue*)은 핵심적 근거 중의 하나로 습관화에 따른 품성개념을 전제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다른 종류의 도덕 심리학(*moral psychology*)을 통해 습관화를 분석할 경우 덕에 대한 다른 이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행복에서 그리스도적 지복으로 이행을 살펴본 후 그의 대안적 도덕 심리학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논리로 고전적 덕의 견고성을 반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전적 행복(*eudaimonia*)에서 그리스도적 지복(*beatitudo*)으로

행복은 자기 원대로 사는 것이라는 통속적 이해에 대한 반박은 지금은 전하지 않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인용함으로써 시작된다.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대신에 진정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따져보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할 만한 것 없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불행해

때문이다. 마치 훌륭한 장군이 현존하는 부대를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고, 좋은 제화공은 주어진 가죽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구두를 만들어 내며, 또 다른 모든 전문적인 기술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처럼 …… 그렇다면 완전한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며 외적인 좋음들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평생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 만약 그렇다면요 한다면 우리는 살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사람들을 지극히 복된 사람이라고, 물론 인간인 한에서 지극히 복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10장.

- 5) “그대가 바라는 바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그대가 이룰 수 있는 것이나 바라게나.” (테렌티우스, *Andria* 2.1, vv.305-306, *quoniam non potest id fieri, quod vis/ id veils, quod possit*) 아우구스티누스, 성명 역, 『신국론』 14권 25장(분도, 2004), 1529; J. Wetzel, *Augustine and the limits of virtu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59.

지기도 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고들 누구나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다. 인간에게 합당치 못한 바를 원한다는 것은 더없이 가련한 일이다! 또 불행이 있다면 소망하는 바에 도달 못 하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합당한 소망도 못 되는 것을 소망하고 또 거기 도달하는 데에 있다.⁶⁾

여기까지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욕망의 조정’과 같은 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해야 행복하다는 말은 결국 아무 욕망이나 충족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충족될 가치가 있는 욕망이 충족되어야 행복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사랑할 만한 것인가? 아래 인용문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신의 자유로운 향유, 불안 없는 향유 쪽에서 찾는 듯하다. 그는 이 개념의 매개를 거쳐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상실할 수 없는 선’을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제시한다.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안심하고 향유하는 사물이 아니면 인간 영혼은 이를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에 반하여 상실할 수 있는 선들에 관한 한 아무도 안심하지 못한다. 진리와 지혜는 아무도 자기 의지에 반하여 상실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공간상으로 진리로 부터 격리될 수 없으며, 진리와 지혜로부터 분리 자체가 곧 비뚤어진 의지, 곧 열등한 사물들을 사랑하는 의지를 가리킨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무엇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Nemo autem vult aliquid nolens) (단일한 진리를) 우리 모두 간직하고 모두가 동등하고 공통으로 그 진리를 향유하고 있다. 그 진리에는 아무런 부족도 없고 아무런 결함도 없다.⁷⁾

6) omnes aiunt esse beatos, qui vivunt ut ipsi velint …… Falsum id quidem. Velle enim quod non deceat, id ipsum miserimum est: nec tam miserum est non adipisci quod velis, quam adipisci velle quod non oporteat. 『삼위일체론』 13.5.8. 크레모나, 성염 역, 『성 아우구스티누스 전』(바오로딸, 1992), 43. Cicero, *Hort.*, fragm. 39, ed. Mueller, 317. “사람이 사랑하는 바를 소유할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바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시편상해』 26,7 *quando quisque quod amat habere videtur, felix vocatur. Vere autem felix est, non si id habeat quod amat; sed si id amet quod amandum est.*

그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상실할 수 없는 선’으로 제시한 진리와 지혜는 일단 그 기준은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체로 어떤 방향인지 짐작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자. 만약 우리가 지혜의 덕을 발휘해서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상실할 수 없는 것을 향유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지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의 자유로운 향유, 불안 없는 향유를 결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과 죽음을 든다. 우리 욕망의 조정이란 것도 결국 이런 요소들 앞에서, 특히 죽음의 한계 앞에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들이야 말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행복의 중요한 계기로 제시했던 자유로운 향유, 불안 없는 향유를 좌절시키는 요소들이 아닌가?

아무리 꼼꼼히 헤아려 보더라도 행복한 사람만 자신의 소원대로 살고 있다. 또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마저 자기가 죽고 그르치고 고통당하는 일이 결코 없고 앞으로 도 결코 없으리라는 확실한 경지에 이르지 않는 이상, 자신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연본성이 이것을 회구하는데, 그 회구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는 한 충만하게 또 완전하게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 누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가?⁷⁾

결국 우리가 아무리 욕망을 조정해서 자유롭게 선을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포함한 불행에 통제불가능한 방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 자유롭게 향유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한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며, 충만하고 완전하게

7)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 『자유외지론』 2권, 13.37-38, 229 중 일부 수정해서 인용. *Nulla enim re fruitur anima cum libertate nisi qua fruitur cum securitate. Nemo autem securus est in his bonis quae potest invitus amittere. Veritatem atque sapientiam nemo amittit invitus. Non enim locis separari ab ea quisquam potest, sed ea, quae dicitur a veritate atque sapientia separatio, perversa voluntas est, qua inferiora diligentur. Nemo autem vult aliquid nolens. Habemus igitur qua fruamur omnes aequaliter atque communiter; nullae sunt angustiae, nullus in ea defectus.*

8)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 『신국론』 14권 25장(분도, 2004), 1529-1531.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인간은 이 한계를 어쩔 수 없다고, 이 어쩔 수 없음을 통찰하는 것으로부터 제대로 된 행복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답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종류의 답변이 결국 불행을 참아내는 것에서 성립하는 행복이며 진정한 행복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는 플라톤이 『향연』에서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계기로부터 영원성, 혹은 불멸을 도출해낸다.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삶이 영원하지 않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불행을 인종(忍從)하면 행복하다고 할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갖고 있다면, 이 삶을 다른 모든 사물들보다 훨씬 더 사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무엇이든지 바로 행복한 삶을 바라고서 사랑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토록 사랑한다면, 그만큼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행복한 삶을 그만큼 가치있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삶이 영원할 때에만 그 삶은 행복할 것이다.⁹⁾

영원한 삶에서 성립하는 이 행복은 고전적 행복(*eudaimonia*) 개념과 구별해서 지복(*beatitudo*)으로 불려야 마땅할 듯하다. 고전적 행복이 죽음이나 운명의 우연성과 같은 한계에 대해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 개념에 내재해 있던 선의 충만성과 완전성을 발판으로 인간적 한계의 극복에서 성립하는 행복을 ‘진정한 행복’, 정확히 말하자면 지복으로 정의한다. 그에게 있어 최고선은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이 지점이 고전적인 행복의 윤리학의 지평을 벗어나는 곳으로 보인다. 선과 악의 목적이 현세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9)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4권 25장. *num ideo beatus est, quia patienter miser est? Beata quippe vita si non amatur, non habetur. Porro si amatur et habetur, ceteris omnibus rebus excellentius necesse est ametur, quoniam propter hanc amandum est quicquid aliud amatur. Porro si tantum amatur, quantum amari digna est (non enim beatus est, a quo ipsa beata vita non amatur ut digna est): fieri non potest, ut eam, qui sic amat, non aeternam velit. Tunc igitur beata erit, quando aeterna erit.*

이승에서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철학자들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대목이다.¹⁰⁾ 인간적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려는 사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이 아니다. 인간적 한계의 초월에 대한 앞선 사상가들¹¹⁾과의 차이라면, 그리스도교적인 초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초월의 지향점과 길을 알려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적 행복관이 전제하는 행위의 목적론적 계열은 여전히 수용하면서 고전 윤리학이 설파했던 인간적 행복으로부터 신적 지복으로 나아간다. 인간적 노력의 계열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궁극목적을 보다 수미일관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인간적 행복에서 한계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 목적의 변화는 물론 고전적 행복이 실현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의 변화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달족의 침략에 의해 포위당한 히포에서 남겼다는 다음과 같은 말은 행복이 실현될 현실을 옹변적으로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 (다음과 같은) 현자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셨다. “나무와 돌이 스러지고, 죽을 존재가 죽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 못된다.¹²⁾

-
- 10)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9권 4.1장, 2147-2149.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최고선이요 영원한 죽음이야말로 최고악이라고 답변하라. 전지를 획득하고 후자를 회피하려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이라야 살 것입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므로 그것을 믿고서 찾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할 때 믿음을 준 바로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 수 없다. 또 우리가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르는 것도 그분이 준 그 믿음에 입각해서다. 그렇지만 철학자들은 선과 악의 목적이 현세생활에 있다고 생각한다. …… 기이한 허영심을 품고서 그들은 이승에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 11) 필자는 우선적으로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인간적 불멸의 방식에 관한 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에 나오는, 신적인 것에 대한 사유에서 성립하는 초월을 염두에 두고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이태수, 「지성의 역할에 관하여」,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 07: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2009), 29-31.
- 12) 포시디우스, 이연학, 최원오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28.11(분도, 2008), 123. Et se inter haec mala cuiusdam sapientis sententia consolabatur dicentis: Non erit magnum magnum putans quod cadunt ligna et lapides, et moriuntur mortales. 인용문 안에 나오는

행복이 실현될 현실은 동시에 덕이 실현될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궁극 목적에 서의 이해의 변화가 실현 수단 혹은 달성 수단으로서의 덕 이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먼저 고전적 덕이 실현될 현실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자.

2. 고전적 덕이 실현될 현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단에 따르면 고전적 덕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으로서 혹은 운명의 가변성에서 지속성을 부여하는 힘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의 비참함에 대한 증거이다. 용기라는 덕목이 필요한 현실은 전쟁과 같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현실을 전제하며, 절제의 덕목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따르자면 ‘육이 영을 거슬러 탐하는 …… 내적 전쟁’¹³⁾의 상태를 전제한다. 고전적 덕이 빛날 정도로 발휘되는 상황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 ‘없었으면 더 좋았을 또는 없어지기를 바라야 마땅한’¹⁴⁾ 현실인 것이다.

…… 저 철학자들의 말대로, 죽음을 스스로 결행하도록 강요받을 때 본인으로 하여금 죽음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게 몰아붙이는 원인들은 악이라고, 단순한 악이 아니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악이라고 확실하게

‘현자의 말씀’은 플로티노스의 것이다. *Enneades* 1.4.7.

13) “이승에서 덕이 하는 역할은 악덕들과의 영구적 전쟁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것도 외적 악덕이 아니라 내적 악덕과 벌이는 전쟁이며 남의 악덕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자신의 고유한 악덕과 벌이는 전쟁이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어로 소프로쉬네라 하고 라틴어로는 텀페란티아라고 하는 절제는 육체적 정욕들을 제어함으로써, 정욕이 지성을 끌어당겨 아무 추행에나 동의하게 만드는 것을 막는다. …… 우리가 최고선의 목적을 완성하기를 바랄 때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육이 영을 거슬러 탐하지 않고, 우리 내심에 영이 거슬러 탐하는 악덕이 없는 상태가 아닐까? …… 우리가 이런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우리가 이미 그 행복을 획득했다고 믿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 행복은 우리가 승리를 거둬오므로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욕망을 거슬러 싸워야 할 갈등이 전혀 없는 경지에 도달한 현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9권 4.4장, 2153.

14) 이태수, 「지성의 역할에 관하여」, 26-27.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저처럼 크고 무거운 악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우연에 종속된 삶은 어느 모로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날로 과증해지는 악에 패배하여 스스로 죽음을 결행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불행 앞에서 지는 셈이고 정작 행복한 삶을 찾았지만 이러저러한 사유로 패배를 당한 셈이다. 인생의 위험과 수고와 고통의 위력에 맞서서 저런 덕목들이 큰 도움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인생에는 비참함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더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¹⁵⁾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적 한계 안에서 추구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와 같은 날카로움으로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행복에 대해 어떤 함축을 갖는지 지적한다. 실제적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현명한 재판관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명하다는 재판관이 이런 것을 저지르지만, 이것은 누구를 해치려는 악의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무지로부터 오는 불가피한 처지에서 행하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강요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가피한 처지에 몰려서 그런 짓을 저지른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현자의 악의는 아닐지라도 인간의 불행이라고 부르고 싶다. 재판관이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처지에서 부득이 하게 죄가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죄없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재판관이 무고한 사람을 죽인 죄인은 아니더라도, 본인 역시 행복하지 못할 텐데 그것이 사소한 일인가?¹⁶⁾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 사회는 악의 없는 불행이 횡행하는 곳이다. 용기라는 덕목을 빛나게 했던 전쟁의 원인을 끝까지 통찰한다면, 용기라는 덕목을 칭찬하기 보다 인간의 불의 앞에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더 인간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라보는 현실은 용기라는 덕목을 빛나게 할 전쟁에 무심해지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전쟁의 비참함에 고뇌하는 것이 인간다운 태도가

15)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9권 4.5장, 2159-2161.

16)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9권 6장, 2167.

되는 현실이다.

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현자라면 의로운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현자가 인간이라면, 아무리 의로운 전쟁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전쟁이라는 필요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한층 더 애통해할 것이다. …… 현자로 하여금 의로운 전쟁이라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불의일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불의라면 인간 누구나 통탄해야 마땅하다. 비록 거기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저지른 불의라는 점에서 통탄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이라는 이토록 거창하고 이토록 가공스럽고 이토록 잔혹한 악에 대해 숙고할수록 고통스러워지며, 따라서 전쟁은 비참하다고 실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인간치고 전쟁에 대해 전혀 고심하지 않은 채로 이런 악들을 견뎌내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정신 상태는 더욱 비참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적 감각을 상실한 대가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비참한 인간이다.¹⁷⁾

이런 현실에서 고전적 덕은 더 이상 인간다움을 표상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의 비참을 직시할 때 나오는 그리스도적 덕목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앞서 고전적 덕론의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 즉 덕의 침해불가능성(invulnerability of virtue)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덕의 견고성을 만들어주는 요소에 관해 고전 윤리학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다면, 역으로 현실의 비참을 수용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교적 인간다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습관화

고전적 덕론에 따르면 우리 본성에 여러 가능성으로 주어진 영혼 고유 기능의 발휘 방식이 습관화에 따라 덕 혹은 악덕으로 완성된다. 하나 하나의 행위 혹은

17)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9권 7장, 2169-2171.

활동이 일정 정도 습관으로 굳어지며 이렇게 습관으로 굳어진 품성상태가 그 사람의 성격 혹은 품성을 만든다는 것이다. 덕 혹은 악덕은 이와 같은 형성기제를 가지고 있기에 안정성 내지 지속성을 갖게 된다.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한번 굳어진 습관이 만들어낸 품성상태는 다시 그러한 행동을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덕은 외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개의 행동과 습관, 성격 혹은 탁월성의 품성상태에 관한 이런 연결을 제대로 이해해서, 당신의 행위 하나 하나가 당신이 지향하는 성격과 관련을 갖는 ‘어떤 성질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품성상태(hexis)들은 [그 품성상태와] 유사한 활동들로부터 생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활동들이 어떤 성질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활동들의 차이에 따라 품성상태들의 차이가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즉 이렇게 습관을 들였는지 혹은 저렇게 습관을 들였는지는 결코 사소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차이, 아니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¹⁸⁾

주목할 것은 습관화의 과정 전체를 이끄는 이 통찰, 즉 당신의 행위를 당신이 지향하는 성격과의 관련 하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통찰이나 올바른 습관화의 과정에서 중용을 찾는 것 모두 지혜(phronesis)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습관을 주도하는 것이 이성이라는 생각은 특히 입법을 통해 습관을 들일 필요를 주장하는 대목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입법을 함에 있어 사람들을 탁월성으로 격려하고 고귀한 것을 위해 나아가도록 몰아가야 하며—습관을 통해 훌륭하게 길러진 사람들은 [그러한 말에] 귀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한편 법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족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과 징계를 부과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완전히 추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올바르게 길러지고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한다면, 또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속에서

18)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1장.

살아가며 비자발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런 일은 힘을 가진 어떤 종류의 지성과 힘을 가진 올바른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생겨날 것이다.¹⁹⁾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문제는 고전적 덕론에서 별 문제로 보이지 않던 감정(pathos), 이성의 통제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감정이 실상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²⁰⁾ 고전적 덕론에 따르면 감정 자체는 도덕적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것²¹⁾이고 우리가 그 감정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 습관의 방향이,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덕과 품성이 결정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생각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의지의 행위이다.²²⁾ 욕망과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의지의 행위이며, 두려움과 슬픔은 우리가 싫어하는 바에 저항하는 의지의 행위이다.²³⁾ 우리가 죽음의 위험을 목전에 두고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만, 우리의 이성이 감정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고귀함 때문에 용감하게 행위하기로 선택할 때²⁴⁾,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이 경우를 궁극적으로는 신체현상으로 환원되는 공포의 감정에 대해 이성이 승리한 것으로 진단하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라면 감정과 이성의 대립 자체가 이성의 승리에 미세한 얼룩을, 그것도 이성이 일정정도 자기소외를 경험하는 방식의 얼룩을 남기는 것으로 진단할 것이다.²⁵⁾ 이 대목에서 진화의 비유를 써도 좋다면, 우리의 이성이

19)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 9장.

20) J. Wetzel, *Augustine and the limits of virtue*, 15.

21) “어떤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혹은 화를 냈다고 칭찬하지는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이 단적으로 화를 냈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화를 냈다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5장.

22) C. Harrison, *Augustine: Christian Truth and Fractured Humanity*, 93-94.

23)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4권 6장, 1449. *Nam quid est cupiditas et laetitia nisi voluntas in eorum consensione quae volumus? Et quid est metus atque tristitia nisi voluntas in dissensione ab his quae nolumus?*

2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3권 9장 4-5절.

25) J. Wetzel, *Augustine and the limits of virtue*, 53.

아무리 우리의 원천적인 동물적 차원을 부정하는 덕목을 찬양하고 그것에 따라 살기로 결심해도, 오랜 진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본능적 욕구의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진화론적 가치정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극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악덕과 죄는 우리가 달콤한 즐거움에 동의할 때 발생하며,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중력처럼 우리를 이끌어간다.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사랑과 갈망의 압력을 강화하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더욱 쉽게 습관적으로 동의하게 된다.²⁶⁾ 고전적 덕론에서 이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비이성적인 것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던 습관은, 이제 이성과는 다른 진화적 역사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육체가 만드는 습관으로, 즉 기쁨과 사랑, 공포와 회피를 통해 만들어내는 동의와 습관의 상호 강화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육체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이성이 습관을 통해 덕을 형성하는 모델의 자리에 육체가 사랑을 통해 만든 습관이 이성적 파악의 실현을 가로막는 모델이 등장하는 것이다.²⁷⁾ 이전에는 반대되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성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만든 당신의 습관과 덕목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고 무엇에서 고통을 느끼는지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당신이 어떤 덕목을 얼마나 완성했는지, 혹은 완덕에 얼마나 이르렀는지의 차이가 오십보 백보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고,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불변의 것을 사랑하는지, 자기의 의지에 반해 상실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지,

26) John M. Rist, *Augustine. Ancient Thought Baptiz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76.

27) 육체의 습관, 무계가 장애로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은 고백록에 등장한다. “나는 어느덧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 허나 내 하느님을 누리는 기쁨이 줄곧 오래인 것은 아니었으니, 당신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쓸렸다가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계로 해 당신에게서 미끄러져 나오고, 동시에 비명을 울리며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계란 곧 육욕의 버릇이오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최민순 역, 『고백록』 7권 17장, 184-185.

자기보다 열등한 것을 사랑하는지. 이 결정적 차이에서 인간다움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선과 악 중 어느 것을 사랑하는지, 즉 사랑의 방향에서 덕을 이해하는 첫 모델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선한 사람 혹은 좋은 사람은 선한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²⁸⁾

4. 사랑의 질서로서의 덕

고전적 덕론에서는 이성이 가지고 있던 습관의 주도권을 아우구스티누스의 덕론에서는 사랑이 가지게 되는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고전적인 4주덕이 왜 사랑으로 재정의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덕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사유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을 ‘하느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정의한다. 전통적인 4주덕은 이제 이 사랑의 다양한 변용(affectus)으로 이해된다.

절제는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하고 부패하지 않게 지키는 사랑이며, 용기는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 쉽게 인내하는 사랑이며, 정의는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며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복속된 다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사랑이며, 지혜는 하느님께 도움이 되는 것들과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분간하는 사랑이다.²⁹⁾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덕을 정의하는 데 쓰는 ‘사랑의 질서’(ordo amoris) 역시 이 하느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준거점으로 삼는다. 자체 목적으로

28)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1권 28장. Neque enim vir bonus merito dicitur qui scit quod bonum est, sed qui diligit.

29)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et de moribus Manichaeorum*[가톨릭교회의 관습과 마니교도의 관습] 1.15.25. Quare definire etiam sic licet, ut temperantiam dicamus esse amorem Deo sese integrum incorruptumque servantem, fortitudinem amorem omniantpropter Deum ficileperferentem, iustitiam amorem Deo tantum servantem et oprooc bene imperantem cetee ser Deuomini subiecta sunt, prudentiam amorem bene discernentem ea quibus adiuvetur in Deum ab his quibus impediri potest.

사랑할 만한 것, 향유의 대상이 되는 것과 수단적으로 사랑할 것, 이용할 것의 구별이 선하게 사랑하는 것과 악하게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는 핵심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체의 아름다움은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선이지만 현세적이고 육적이고 아주 낮은 선이며, 이처럼 영원하고 내적이고 항속하는 선인 하느님을 뒷전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잘못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저버린 채 황금을 사랑할 때, 그것이 황금의 죄가 아니고 사람의 죄인 것과 흡사하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다. 피조물은 선한 것이기는 하지만 선하게 사랑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랑할 수도 있다. 질서가 준수되는 한, 선하게 사랑하는 것이고 질서가 무너지면 악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 내가 보기에, 덕성에 관한 정확하고 간결한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질서다.³⁰⁾

덕성을 사랑의 질서로 정의하는 이면에는 육체와 악덕에 대한 다스림이라는 전통적 덕 역시 올바른 사랑의 질서 속에 자리잡을 때만 참된 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놓여있다. 이성의 욕망 혹은 감정 지배를 습관을 통해 완성한다는 고전적 덕론의 구도는 결국 무엇을 사랑하면서 만들어진 습관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덕인가의 문제에서 고전적 지평을 떠나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위인들의 덕은 찬탄할 만한 것이었지만, 결국 명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연원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의미, 하느님 사랑이라는 제대로 된 틀에 들어가지 않는 한 온전한 의미를 획득할 수 없는 덕이었던 것이다.³¹⁾ 고전적 행복을 넘어 그리스도적 지복을 목적으로 삼을 때만 고전적

30)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5권 22장, 1639-1641, Sic enim corporis pulchritudo, a Deo quidem factum, sed temporale carnale infimum bonum, male amatur postposito Deo, aeterno interno sempiterno bono, quem ad modum iustitia deserta et aurum amatur ab auaris, nullo peccato auri, sed hominis. Ita se habet omnis creatura. Cum enim bona sit, et bene amari potest et male: bene scilicet ordine custodito, male ordine perturbato …… Unde mihi uidetur, quod definitio brevis et vera virtutis ordo est amoris;

31) “참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통치권에 복속하지 않고 부패하기 이를 데 없고 또 남을 부패시키는 정령들에게 몸을 파는 자성이 어떻게 육체와 악덕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스스로 덕성을 갖추었노라고 자부하고 그 덕성으로 육체와

덕은 참된 덕이며, 육체의 습관이 가리키는 사랑에서 성립하며 근본적으로 내적 분열을 함축하는 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방향을 잡은 영혼의 습관에서 성립하는 덕이어야 참된 덕이라는 것이다.

육체의 습관에 물든 인간이 어떻게 이 질서잡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만, 습관화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기제를 고전적 덕론과는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사랑과 사랑의 질서를 중핵으로 하는 덕론으로 변형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III. 나가는 말

고전적인 행복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리했던 인간의 한계를 신학적 지평으로 까지 넘어가면서 행복의 완전성 개념과 양립가능하게 만들고, 고전적 덕이 빛날수록 비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 인간에게 남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신앙과 의지를 달라는 기도 밖에 없는 것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고전적 덕론의 핵심 개념이던 습관 개념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랑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 지적하는 것 같다. 고전적 행복과 덕의 가치를 거의 무화시켰던 비참한 현실은 물론 그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랑할 만한 것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덕이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지금의 삶에 궁극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신국(civitas Dei)에 대한 사유가 있다. 아우구스

악덕에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획득하고 보존하는 목적에 연관된다면 그것은 덕이라기보다도 차라리 악덕이다. 덕목이 다른 이유로 추구되지 않고 오직 덕목 자체로만 연관된다면 진실하고 고상한 덕목이라고 여길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스스로 으스대는 오만한 덕목일 터이고 따라서 덕이 아니며 오히려 악덕이라고 단정지어야 한다. 육을 살게 만드는 것이 육에서 오지 않고 육 위에 있듯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서 오지 않고 인간 위에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9권 25장, 2243-2245.

티누스는 현세가 신국으로 가는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말고, 잠시적인 것에는 잠시적인 것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것은 이용하며 여정을 가라고, 여정의 끝으로부터 부여받을 인생의 무게 앞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국은 말하자면 육체의 습관에 발목을 잡힌 인간의 자기 초월의 지향점이며, 현세에서의 이 모든 수고가 정당화되는 최후의 심급인 셈이다. 현세가 보여주는 어쩔 수 없는 것들과 필연은 앞에서 인용했던 현명한 재판관의 경우처럼 악의 없는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지만 이 불행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신앙에서만 위로를 받고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상황이다. 현세의 어쩔 수 없음을 상쇄할 내세의 영원한 생명과 궁극적 선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말하자면 내세를 믿을 이유 중 하나인 셈이다. 진정 사랑할 만한 것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의 비참을 받아들여도, 그렇다고 거기에 당신의 시선을 잃지는 말라는 주문,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어려운 주문처럼 들린다.

현실적 인간의 유한성과 비참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나오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이 현실의 인간의 인간다움이 발휘되는 길은?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
 입을 다물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라.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하라.
 남을 바로 잡아 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 잡아 주라.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대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사랑의 뿌리가 드리우게 하라.
 이 뿌리에서는 선 외에 무엇이 나올 수 없거니.³²⁾

32) *In epistulam Ioannis ad Parthos tractatus*[요한서간 강해] 7.8; 크레모나 편, 성영 옮김, 『명상록』(바오로딸, 1991), 45, *Dilige, et quod vis fac: sive taceas, dilectione taceas; sive clames, dilectione clames; sive emendes, dilectione emendes; sive parcas, dilectione parcas: radix sit intus dilectionis, non potest de ista radice nisi bonum existere.*

참고문헌

- 강상진(2007a),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가톨릭철학』 9.
- 강상진(2007b), 「명저탐방: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문명의 전환은 어떻게 철학적으로 소화되는가?」, 『철학과 현실』 75.
- 이창우(2002), 「인간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 『인간연구』 3.
- 이태수(2009),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 07: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2009.05.30부터 2009.7.4까지 5회)
- 전현상(2004), 「소망과 품성 : 이성적 욕구와 영혼의 비이성적 상태들」, 『서양고전학연구』 21.
- 카를로 크레모나, 성염 옮김(1991), 『명상록』, 바오로딸.
- 카를로 크레모나, 성염 옮김(1992), 『성 아우구스티누스 전』, 바오로딸.
- 포시디우스, 이연학, 최원오 역주(2008),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분도.
[Possidio, Bastiaensen, A.A.R. ed.(1997), *Vita dii Agositno*, Milan]
- Aristoteles, Bywater, I. ed.(1894), *Ethica Nicomachea*, Oxford Univdrsrity Press.
[한국어 번역: 아리스토텔레스,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2006),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 Augustinus, *Confessiones*,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27.
[한국어 번역: 아우구스티누스, 최민순 역(1965), 『고백록』, 바오로; 선한용 역(2003), 대한기독교서회]
- Augustinus, *De civitate Dei*,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47-48.
[한국어 번역: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주(2004), 『신국론』, 분도]
-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32.
[한국어 번역: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주(1989), 『그리스도교 교양』, 분도]
-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29.
[한국어 번역: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주(1998), 『자유에의지론』, 분도]
- Augustinus,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et de moribus Manichaeorum*[가톨릭교회의 관습과 마니교도의 관습]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um Latinorum 90.
- Augustinus, *De Trinitate*[삼위일체론]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50.

- Augustinus, *De vera religione*,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32.
[한국어 번역: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주(1989), 『참된 종교』, 분도]
- Augustinus, *Ennarationes in Psalmos*[시편 상해]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38-40
- Augustinus, *In epistulam Ioannis ad Parthos tractatus*, [요한서간 강해] Nuova Biblioteca Agostiniana 24/2
- Gilson, Etienne(1949), *Introduction à l'étude de saint Augustin*. Vrin.
[한국어 번역: 질송, 김태규 옮김(2010),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Harrison, Carol(2000), *Augustine: Christian Truth and Fractured Humanity*, Oxford University Press.
- Hök, Gösta(1960), "Augustinus und die antike Tugendlehre," *Kerygma und Dogma* 6.
- Horn, Christoph, "Augustinus über Tugend, Moralität und das höchste Gut," Fuhrer, Th./Erlar, M. eds.(1999), *Zur Rezeption der hellenistischen Philosophie in der Spätantike*, Steiner Verlag.
- Johnson, Penelope D.(1975), "Virtus: Transition from Classical Latin to the De Civitate Dei," *Augustinian Studies* 6. [J. Dunn/I. Harris, eds.(1997), *Augustine*, vol. 2, Cheltenham에 재수록]
- Rist, J.M.(1994), *Augustine: Ancient Thought Baptiz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tzel, J.(1992), *Augustine and the Limits of Virtu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In Augustine we can find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western theories of virtue. Instead of the happiness that human beings reach through virtues, i.e. through performing well their functions, Augustine posits a model based upon the polarity between the love of self and the love of God. True happiness, identified by Augustine with the Christian beatitude, cannot consist in human flourishing through virtues. Classical virtues may succeed in restraining irrational passions, but disruptive passions are themselves indicative of direction of love. The habituation, key process of classical virtues, seems to have to face an unexpected aspect of love. Unless virtues are placed under the right order of love, according to Augustine, their reigning powers over the pass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of the human happiness can have only a limited significance. We notice here a shift of the main focus in the theory of virtues, namely from the performance of the appropriate functions to the polar direction of love, even though the means-end structure left intact. In this sense we interpret the Augustinian contribution as a transformation of the classical theory of virtue.

【Keywords】 Augustine, Aristotle, virtue, habituation, passion, happiness, beatitude

논문 투고일: 2010. 08. 18

심사 완료일: 2010. 10. 04

게재 확정일: 2010. 10. 11